
농어민 정보격차 방안에 관한 연구

윤형득* . 신현식*

A Study on Improve Of Digital Divide For Farmer and Fisher

Hyeong-deug Yoon* . Hyun-sik Shin*

요 약

본 논문은 디지털 경제시대에 발생하는 사회 구성원간의 정보격차 중 정보소의 계층인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정보격차 실태를 분석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state of the digital divide which targets the farmers and fishermen. They are the information alienation social class that derives from the digital divide between social members which occurs from digital economy period.

키워드

Farmers and Fishermen, Information Alienation, Digital Divide, Digital Economy

I. 서 론

현대는 정보가 부와 권력의 원천이 되는 지식정보 사회다. 정보는 사회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 되었고, 그 결과 정보를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간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문제는 정보격차가 소득과 학력별 격차와 동일한 패턴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고학력, 고소득일수록 인터넷 접근과 활용도가 뛰어나 정보습득 및 활용이 쉬운 반면, 저학력, 저소득일수록 인터넷 접근이 쉽지 않아 정보습득이 떨어져 양자 간 이전보다 소득 및 삶의 질에 있어 더 큰 격차가 초래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다. 결국 소외계층은 정보 접근성의 한계로 인해 정보화 면에서 더욱 뒤처지고 경제·사회적으로 점점 더 소외될 수밖에 없다[1].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화된 정보가 매일 무한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보의 다양한 변화와 속도 때문에 법과 제도가 그 발달 속도에 부응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정보가 유통, 가공이 이루어지면서 사회 구성원 간 각 경제주체 간 이렇게 체계화 되고 디지털화된 정보들을 소통의 도구로 하여 그 정보들을 통해 생산과 소비가 동시다발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을 하는 시대에 우리는 깊숙이 접어들었다.

이동통신과 유무선 인터넷이 통합화와 기능의 분화 그리고 상호 융합되면서 경제규모 만큼이나 그 저변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경제활동의 결제수단이 점차 점진적으로 On-line상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정보화의 시대를 열면서 시장의 효율화 측면에서는 대단히 긍정적 요소라 할 수 있으나 반면

* 전남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
심사완료일자 : 2009. 04. 21

접수일자 : 2009. 03. 30

에 이런 지식정보화의 정보기기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못한 그리고 정보기술의 교육의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들은 날로 발전의 속도를 더해가는 정보통신기술의 흐름에 편승하지 못해 정보소외계층으로 전락시켜 많은 정보수단과 방대한 정보량을 보유한 사람과 그 정보수단과 정보량을 보유하지 못한 사람 간 정보격차 문제를 야기하여 삶의 질까지 엄청난 격차를 발생시키고 있다. 정보격차문제는 학력별, 소득별, 연령별, 직업별, 지역별, 성별 등 다양한 집단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 농간 소득편차가 날로 심해지고 있고 농, 어촌의 고령화도 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일부의 통계에서는 농, 어촌의 고령화로 사회 전체의 생산기반의 붕괴를 경고하고 있기까지 한다. 이러한 정보격차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보 격차로 인한 부(富)의 편중 및 새로운 신분의 고착화이다.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고급정보를 특정계층이 독점하여, 이로 인한 부의 편중, 신분격차가 심화되어 사회 문제화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것이다. 전문가의 견해로는 정보격차로 인한 불균형은 산업화시대 불균형에 비해 약 30배의 위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빈부의 격차라는 큰 문제를 넘어 정보소외계층에게 기회의 제공까지 박탈함으로써 생존의 문제로까지 직결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농, 어촌은 영농규모가 대부분 영세하다보니 정보화의 필요성에 둔감하여 농, 어촌 내에서도 소득별, 학력별, 성별 정보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농, 어촌의 정보격차 현황을 살펴보고 그 해소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모색해 본다.

II. 농어민의 컴퓨터 보유 및 인터넷 이용 현황

2.1 가구 컴퓨터 보유 현황

우리나라의 농어민 가구의 컴퓨터 보유현황은 2003년을 기점으로 33.2%에서 2008년에 57.4%로 신장되었으며 전체국민과의 격차도 2003년 44.7%에서 2008년에 23.5%까지 격차를 줄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1. 농어민 가구 컴퓨터 보유율
Table. 1 Computer Holding Ratio

구분	가구 컴퓨터 보유율(%)						전년대비 증감폭(%p)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전체 국민	77.9	77.8	78.9	79.6	80.4	80.9	0.5↑
농어민	33.2	35.8	43.6	50.2	55.0	57.4	2.4↑
격차(%p)	44.7	42.0	35.3	29.4	25.4	23.5	1.9↓

※ 자료: 전체국민은 NIDA의 2003~2008 각 년도 하반기 정보화 실태조사 기준

년간 보유율도 전체국민의 보유율의 증가폭을 상회하여 꾸준히 보유율을 늘여가고 있음을 표1은 제시해 준다. 2003년에서 2008까지 전체국민의 컴퓨터 보유율은 77.9%에서 80.9%로 3%시장하는데 그쳤으나 농어민의 컴퓨터 보유율은 33.2%에서 57.4%로 24.2%의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2.2 소득별 컴퓨터 보유현황

1백만원 미만 저소득 농어민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은 22.0%, 1백만~2백만원미만에서는 61.5%, 2백만원~3백만원미만에서 82.8%, 3백만원 ~ 4백만원미만은 88.4%, 4백만원이상에서는 98.6%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농어촌내에서도 이렇게 소득의 차이에 따라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2. 2008년소득별 컴퓨터 보유율
Table. 2 2008 Computer Holding Ratio

1백만 미만	1백만~2백만 미만	2백만~3백만미만	3백만~4백만미만	4백만 이상	전체 농어민	비고
22%	61.5%	82.8%	88.4%	98.6%	57.4%	

2.3 인터넷 이용현황

2008년 말 기준, 농어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35.2%로 전년 대비 1.8%p 증가하였고 전체 국민 인터넷 이용률인 77.1%보다 41.9%p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농어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2003년 16.2%에서 2008년 35.2%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국민들을 대상으로 보면 그 격차가 2003년에 49.3%에서 2008년에 41.9%로 줄어들고 있는으나 아직도 현격한 격차가 존재함을 볼 수 있다.

표 3. 인터넷 이용률
Table. 3 Internet coefficient of utilization

구 분	인터넷 이용률(%)						전년 대비 증폭(%)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전체 국민	65.5	70.2	72.8	74.8	76.3	77.1	0.8↑
농 어 민	16.2	16.9	23.0	29.4	33.4	35.2	1.8↑
격차(%p)	49.3	53.3	49.8	45.4	42.9	41.9	1.0↓

농어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인터넷 이용률 분석결과, 여성보다는 남성이, 저연령, 고학력, 고소득 가구일수록 인터넷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성별 인터넷 이용률은 남성 42.8%, 여성 28.0%로서 남녀간 격차가 14.8%p이며, 학력별 인터넷 이용률은 초등졸 이하 5.9%, 대졸 이상 89.8%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대 이하 연령층의 인터넷 이용률이 96.7%인 반면, 50대와 60대 이상 인터넷 이용률은 각각 37.2%, 8.5% 수준이며 월가구소득별 인터넷 이용률은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는 9.4%, 100만원~200만원미만 36.5%, 200만원~300만원미만 53.6%, 300만원~400만원미만 65.7% 4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는 70.0%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4. 소득, 학력, 연령, 성별 인터넷 이용률
Table. 4 internet coefficient of utilization

전체 농어민	남성	여성
35.2%	42.8%	28.0%

전체 농어민	대졸이상	고졸	중졸	초등졸
35.2%	89.8%	72.2%	27.5%	5.9%

전체 농어민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22%	61.5%	82.8%	88.4%	98.6%	57.4%

1백 미만	1백~ 2백미만	2백~ 3백미만	3백~ 4백미만	4백 이상	전체 농어민
9.4%	36.5%	53.6%	65.7%	70.0%	35.2%

2.4. 정보격차지수

일반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국민과 농어민 계층 간 상대적 정보격차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하여 일반국민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농어민 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측정하여 격차지수를 산출하였다.

※ 정보격차 지수는 0~100(점) 범위의 값을 가지며, 100(점)에 가까울수록 정보격차 수준이 커짐을 의미

- 1) 종합 격차지수 : 접근·역량·활용 부문을 종합한 정보화 수준의 격차 측정
- 2) 접근 격차지수 : 컴퓨터·인터넷 등 정보통신 인프라 접근 수준의 격차 측정
- 3) 역량 격차지수 : 컴퓨터·인터넷 사용능력 수준의 격차 측정
- 4) 양적 활용 격차지수 : 컴퓨터·인터넷의 사용량으로서 양적 사용 수준의 격차 측정
- 5) 질적 활용 격차지수 : 컴퓨터·인터넷 사용의 질로서 질적 사용 수준의 격차 측정

2.5 정보격차 지수 산출결과

접근·역량·활용 등 모든 부문에서 정보격차 지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국민과 농어민간 정보격차가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접근·역량·활용 부문별 정보격차 수준의 종합 측정 요약치인 종합 격차지수는 '07년 45.4점에서 '08년 42.1점으로 3.3점 감소하였다.

※ 일반국민의 종합 정보화 수준을 100%(1)으로 가정할 때, 일반국민 대비 농어민의 종합 정보화 수준이 '07년 54.6%에서 '08년 57.9%로 전년 대비 3.3%p 상승한 것을 의미한다

부분별 전년 대비 격차지수 감소폭은 질적 활용(5.5점 ↓), 접근(4.2점 ↓), 역량(2.7점 ↓), 양적 활용(2.0점 ↓) 등의 순으로 나타나, 질적 활용 부문에서 일반국민 대비 농어민의 정보화 수준이 가장 크게 상승하였다.

※ 격차지수 감소폭은 전년에 비해 상승한 농어민의 일반국민 대비 정보화 수준을 의미한다

표 5. 부분별 정보격차 지수(점) 및 대비수준(%)
Table. 5 Digital Divide Index & level(%)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격차 지수	대비 수준	격차 지수	대비 수준	격차 지수	대비 수준	격차 지수	대비 수준	격차 지수	대비 수준
접근	48.7	51.3	42.1	57.9	30.5	69.5	23.3	76.7	19.1	80.9
역량	81.7	18.3	75.0	25.0	70.9	29.1	69.5	30.5	66.8	33.2
양적 활용	76.5	23.5	68.0	32.0	61.9	38.1	57.6	42.4	55.6	44.4
질적 활용	80.5	19.5	74.5	25.5	68.7	31.3	68.0	32.0	62.5	37.5
종합	66.2	33.8	58.3	41.7	50.2	49.8	45.4	54.6	42.1	57.9

※ 격차지수 = 일반국민 정보화 수준(100으로 가정) - 일반국민(100) 대비 농어민의 정보화 수준

※ 대비수준은 일반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가정할 때 일반국민 대비 농어민의 정보화 수준을 의미

농어민의 접근 부문 정보화 수준은 일반국민의 80.9%인 반면 역량·양적 활용·질적 활용 부문은 일반국민의 33.2%, 44.4%, 37.5%로 나타나, 컴퓨터·인터넷 접근 정도 및 보유 여부와 연관된 정보접근 격차보다 정보 활용능력·활용량·활용유형(사용의 질)과 연관된 정보활용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고 일반국민의 80% 이상 수준으로 제고된 농어민의 정보접근 수준을 실생활내 생산성 향상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 연계시키기 위한 활용격차해소 정책의 추진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3].

2.6 농어민 계층내 정보격차 현황 측정방법

접근·역량·활용 부문의 정보화 수준을 포괄하여 나타내는 종합지수를 기준으로 정보불평등 계수(Digital Gini Ratio)를 산출하여 농어민 계층내 정보

격차 현황을 분석하고 정보불평등 계수는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소득불평등도 측정 지표인 지니계수(Gini ratio) 산출 방식을 준용하여 산출함

지니계수와 마찬가지로, 정보불평등 계수도 '0~1'의 사이 값을 가지며, 완전 평등 상태의 계수 값은 '0'이며, 완전 불평등 상태의 계수 값은 '1'로 나타남

예를 들어, 측정 대상 농어민내 구성원들이 동일한 정보 접근·역량·활용 수준을 가지고 있다면 농어민 계층의 정보불평등 계수는 '0'이 된다.

2.7 농어민 계층내 정보격차 현황 측정결과

접근·역량·활용 부문을 포괄하는 종합 정보화 수준(종합지수)을 기준으로 했을 때, 농어민내 구성원들 간 정보불평등도를 의미하는 정보불평등 계수가 감소 추세로 나타나, 일반국민과 농어민간 정보격차 뿐만 아니라, 농어민내 정보격차도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농어민내 컴퓨터·인터넷 이용자 규모가 커질수록 접근·역량·활용 부문별 정보화 수준이 '0'인 집단의 규모가 작아져, 농어민 계층내 정보 불평등 정도가 작아지기 때문이다[3].

표 6. 농어민 계층내 정보불평등 현황
Table. 6 Social class of Information Unbalancing coefficient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0.583	0.575	0.465	0.415	0.394

III. 인터넷 이용 및 비용자 특성

3.1 인터넷 이용시 애로사항 분석

인터넷 이용자 기준, 인터넷 이용시 주 애로사항은 '인터넷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점'(31.6%)으로 나타났다으며 그 다음으로는 '유용한 내용 및 활용용도 부족'(17.7%), '느린 접속방식 및 노후한 PC 기종'(17.0%), '스팸메일·게임중독·사이버 범죄·불건전 정보유통 등 정보화역기능 문제'(14.7%), '이용 비용의 부담'(11.2%)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 인터넷 이용시 주 애로사항
Table. 7 Internet Using Main Difficulty

인터넷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함	31.9%
유용한 내용 및 활용용도 부족	17.7%
느린접방식 및 노후한 PC기종	17.0%
정보화 역기능 문제	14.7%
이용비용 부담	11.2%
가족과 공동 이용 불편함	6.0%
신체적 제약으로 불편함	1.3%
기타	0.5%

※ 인터넷 이용층 기준

연령대별 인터넷 이용시 주 애로사항 분석 결과, 20대의 저연령층에서는 ‘느린 접속방식’을 주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다양한 용도로 충분히 인터넷을 활용하지 못하는 점’을 주 애로사항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8. 연령대별 인터넷 이용시 주 애로사항(%)
Table. 8 Internet Using Main Difficulty

구 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충분한 활용 부족	12.9	25.5	30.9	38.9	43.5
유용한 내용 부족	19.8	17.2	19.1	16.3	15.3
느린 접속방식	21.6	15.6	18.3	16.3	12.2

인터넷 이용 농어민의 주 애로사항들을 고려할 때, 인터넷 이용 농어민에 특화된 생활밀착형 정보활용 교육 확대 및 다양한 활용용도 개발·보급, 노후기종 보유 농어가 대상 신형(중고) PC 보급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요구된다.

3.2 인터넷 비이용의 주요 원인

인터넷 비이용 농어민 집단의 인터넷 비이용 주원인은 ‘사용방법 모름 및 어려움’(37.4%)이며, 그 다음으로 는 ‘이용 필요성 부재’(18.7%), ‘신체적 제약’(11.7%) 등

표 9. 인터넷 비이용 주이유
Table. 9 Internet Unusing Main Reason

사용방법 모름과 어려움	37.4%
이용필요성 부재	18.7%
신체적 제약으로 인한 불편함	11.7%
집에서 이용 불가	6.6%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름	6.6%
이용비용 부담	5.3%
영어 사용 부담	3.0%
필요시 도와 줄 사람 없음	2.6%
유용한 내용이 없을 것 같음	2.5%
주위 사람이 대부분 비이용	2.3%
기타	3.3%

※ 인터넷 비이용층 기준

’05~’08년간 농어민의 인터넷 비이용 주 이유를 분석했을 때, 매년 ‘사용방법의 모름 및 어려움’이 인터넷 비이용 주 이유로 나타나고 있으며 농어민의 경우, ‘이용 필요성 부재’라는 자발적 요인보다는 ‘사용방법 모름 및 어려움’이라는 비자발적 요인에 의해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2].

표 10. 인터넷 비이용 주 이유 중 ‘사용방법 모름’ 응답률

Table. 10 Computer Illiteracy response Rate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사용방법 모름 및 어려움	43.6% ①	41.6% ①	33.2% ①	37.4% ①
이용 필요성 부재	25.6% ②	23.8% ②	12.6% ④	18.7% ②

※ 인터넷 비이용층 기준

※ 비율은 비이용 이유 항목 중, 가장 큰 비이용 이유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한 응답률임

※ 번호는 각 연도에 제시된 인터넷 비이용 이유 항목 중 순위를 의미함

표 11. 인터넷 용도별 이용률
Table. 11 Internet coefficient Utilization

구 분	농어민		일반국민 이용률
	이용률	대비수준	
○ 인터넷 이용률	35.2%	45.7	77.1%
○ 정보검색	34.8%	45.2 %	77.0%
○ 게임	29.3%	43.0 %	68.2%
○ 신문·잡지보기	26.6%	43.8 %	60.8%
○ 음악청취 및 영화보기	26.5%	37.6 %	70.5%
○ 자료 송수신	23.8%	34.5 %	68.9%
○ 전자우편	23.0%	34.2 %	67.2%
○ TV 시청 및 라디오 청취	22.1%	36.7 %	60.3%
○ 예약/예매	19.1%	31.0 %	61.7%
○ 사회참여 및 커뮤니티 활동	18.9%	36.9 %	51.2%
○ 은행업무처리(인터넷 뱅킹)	18.15	37.7 %	48.0%
○ 메신저	16.7%	27.5 %	60.8%
○ 교육 및 학습	16.3%	32.6 %	50.0%
○ 게시판·댓글 작성	15.8%	28.8 %	54.8%
○ 행정업무처리(전자정부)	15.7%	37.4 %	42.0%
○ 개인 홈페이지 운영	9.8%	22.1 %	44.3%
○ UCC 활동	7.1%	23.5 %	30.2%
○ 구직활동	6.5%	29.3 %	22.2%

※ 용도별 이용률은 전체 집단(인터넷 이용자 + 비이용자)기준, 해당 용도로 인터넷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임
 ※ 대비수준은 일반국민의 인터넷 용도별 이용률을 100으로 가정할 때, 농어민의 일반국민 대비수준을 의미함

인터넷 비이용 주 이유로 ‘이용 필요성 부재’를 지
 적한 비율은 18.7%로 비교적 높은 수준인데 (인터넷
 비이용 이유 중 ‘이용 필요성 부재’는 2순위 항목임)
 이처럼 농어민의 인터넷 비이용 주 이유에서 높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용 필요성 부재’ 이유를 파악
 하기 위해, ‘인터넷 활용용도 및 이용편익(편리함과 이
 익)’ 인지여부를 고려하여 인터넷 이용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분석한 결과 인
 터넷 비이용 주 이유가 ‘이용 필요성 부재’인 집단의
 10명 중 8명은 인터넷으로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인
 터넷 이용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어떤 편익이 얻을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인터넷 이용 필요성을 못 느끼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이용 필요성 부재 이유
Table. 12 Using Necessity Absency Reason

인터넷 활용용도 및 이용편익을 인지하고도 이용 필요성을 못 느끼는 비율	인터넷 활용용도 및 이용편익 비인지로 이용 필요성을 못 느끼는 비율
16.7%	83.3%

농어민의 인터넷 비이용 주 이유를 고려할 때, 농

어민의 인터넷 이용률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 비이용 농어민에 특화된 맞춤형 정보화교육의 확대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용 필요성 부재’로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농어민 대부분은 ‘인터넷 활용용도 및 이용편익’의 비인지로 인해 이용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기에, 이들 집단의 향후 인터넷 이용의향 수준을 끌어올려 이용자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인터넷 활용용도 및 이용편익’ 인지도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

3.3 인터넷 용도별 이용현황

전체 농어민(인터넷 이용자+비이용자) 기준, 농어민의 인터넷 세부 용도별 이용률은 인터넷 기본 용도로서 특별한 활용능력이 요구되지 않으며 오락적 성격의 용도인 ‘정보검색’, ‘게임’, ‘신문/잡지보기’, ‘음악청취 및 영화(동영상)보기’, ‘자료 송수신’ ‘전자우편’, ‘TV 시청 및 라디오 청취’의 이용률이 타 용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반면, 일정수준의 활용능력이 필요하며 특정한 목적성을 가진 인터넷 응용 용도인 ‘구직활동’, ‘UCC 활동’, ‘개인 홈페이지 운영(블로그·미니홈피 등)’, ‘행정업무처리(전자정부)’, ‘게시판·댓글 작성’, ‘교육 및 학습’ 등의 이용률은 기본 용도 이용률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일반국민과 농어민간 인터넷 세부 용도별 이용률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일반국민의 용도별 이용률을 100으로 가정하고 일반국민 대비 농어민의 용도별 이용률 수준을 분석했을 때, 일반국민 대비 인터넷 이용률 수준(45.7%)보다 세부 용도별 이용률 수준이 모든 용도에서 낮게 나타나, 농어민의 일반국민 대비 인터넷 세부 용도별 활용도는 인터넷 이용률 수준보다 더욱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UCC 활동’, ‘구직활동’, ‘개인 홈페이지 운영’, ‘행정업무처리’, ‘게시판·댓글 작성’ 용도의 일반국민 대비 이용률 수준이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4].

3.4 농어민의 연령대별 정보화 수준

정보격차해소 목표(취약계층의 종합 정보화 수준을 일반국민의 80% 수준으로 제고)를 기준으로 농어민의

연령대별 일반국민 대비 정보화 수준 분석결과를 보면 농어민내 점유비율이 높으나, 종합 정보화 수준이 일반국민의 80% 수준에 크게 미달되고 있는 50대 및 60대 이상 고연령 농어민 집단을 우선적 정책대상 집단으로 분류해야 할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된다.

※ 농어민 연령대별 비율 : 50대 미만(24.9%), 50대 (24.0%), 60대 이상(51.0%)

40대 이하 연령층의 일반국민 대비 종합 정보화 수준은 99.7%로 일반국민 수준인 반면, 50대 및 60대 이상 연령층의 종합 정보화 수준은 일반국민의 60.9%, 32.4%로 낮은 수준이다.

- 특히, 50대 및 60대 이상 농어민의 정보역량 및 활용 수준은 정보접근 수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50대 농어민의 정보역량 및 활용 수준은 일반국민의 30.2%, 43.6%이며, 60대 이상 농어민의 정보역량 및 활용 수준은 일반국민의 6.9%, 9.7% 수준이다.

표 13. 농어민 연령대별 정보화 수준
Table. 13 Age Group Information Level

구 분	종합	접근	역량	활용
40대 이하	99.7%	106.1%	82.1%	98.5%
50대	60.9%	87.8%	30.2%	43.6%
60대 이상	32.4%	63.0%	6.9%	9.7%
평균	57.9%	80.9%	33.2%	42.5%

※ 일반국민의 정보화수준을 100%로 가정할 때, 연령대별 일반국민 대비 정보화수준을 의미

반면, 40대 이하 농어민의 부분별 일반국민 대비 정보화수준은 접근 부문 106.1%, 역량 및 활용 부문 82.1%, 98.5%로, 접근 및 활용 부문의 정보화 수준은 일반국민 수준이며 역량 부문은 일반국민의 80% 이상 수준으로 나타난다.[5][6]

표 14. 연령대별 농어민 인터넷 이용률
Table. 14 Age Group internet coefficient utilization

구 분	50대 미만	50대	60대 이상	평균
농어민	80.0%	37.2%	8.5%	35.2%

연령대별 농어민 인터넷 이용률 분석에서도 50대 및 60대 이상 농어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각각 37.2%, 8.5%로 전체국민의 인터넷 이용률(77.1%)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며, 60대 이상의 농어민은 농어민 전체 평균(35.2%)보다도 크게 낮게 나타나고 있다.[7][8]

IV. 결 론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정보접근 및 이용을 위한 환경면에서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정보선도계층과 정보소외계층간의 정보이용능력과 정보활용의 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정보의 활용면에서는 온라인거래, 교육, 금융·행정서비스 등 생산적 이용용도 보다는 게임, 오락, 채팅 등 소비적 이용용도가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소비적 이용행태는 통계상 인터넷이용자로 인지되더라도 정보이용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정보선도계층과 소외계층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농어민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내에서 유관부서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가 즉 농어민이 정보가 곧 소득으로 연결되는 것임을 인식 시켜 자발적으로 인터넷의 활동능력을 배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농어민 중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그동안의 경험이나 감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접촉할 수 있도록 노령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인식 S/W, 터치패널, 문자확대 S/W, 큰 마우스등을 개발보급해야 할 것이다. 각 지자체는 농어촌 지역별로 농협이나 수협의 협조를 통해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정보접근센터를 설립하여 정보화 교육과 각종 농수산물정보를 제공하고 On-line상의 정보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담

당자를 지정하여 날로 글로벌화 되어 가는 세계경제 체제 아래 경쟁력이 제고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향후 더욱 빠른 속도로 정보화가 진행될 것이며 농어촌도 더욱 고령화 사회를 맞게 되고 점점 정보화에서 소외된다면 생산기반의 원천을 잃게 되어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위기를 불러 올 수 있으므로 농어민에게도 연령별, 성별, 소득별, 학력별로 차별화된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도농간의 정보격차는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 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적 배려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농어촌이 경제적 생산기반의 모체라는 생각으로 사회구조의 변화, 문화의 이질감등으로 정보화의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도록 농어민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정책에 적극 입안해야 하고 향후 전개될 통신과 방송의 융합, 유비쿼터스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최첨단 정보화의 도래에도 새로운 정보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민간기업이 상호협력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자 그 대책이 성실히 실행될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세분화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정보환경변화에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접근가능 하도록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1] 김천석, "고령층 정보격차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통신 학회 논문지 Vol. 3, No. 4, pp.205, 2008.
- [2]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8 정보격차 해소 백서, pp.155~167, 2008.
- [3] 신현식의 3인, 정보통신요론, 진영사, pp.61~65, 1998.
- [4] 박연식의 4인, 정보화통신, 경성대학교 출판부, pp.24~25, 2001.
- [5] 한영목, 정보보호개론, 진영사, pp.29, 2007.
- [6] 한국정보화사회 진흥원, 정보화통계집, pp.25~30, 2007.
- [7] 홍승필, 유비쿼터스 컴퓨터 보안, pp.125~140, 2007.
- [8] 신윤식의 3인, 정보사회론, 데이콤출판사, pp. 230~240, 1994.

저자 소개



윤형득(Hyeong-deug Yoon)

1999년 2월 여수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 졸업(공학사)

2002년 2월 여수대학교 대학원 전자통신공학과 졸업(공학석사)

2005년 8월 여수대학교 대학원 전자통신공학과 (박사과정 수료)

현재 GS칼텍스(주) 근무

※ 관심분야 : 통신정책, 해상이동통신



신현식(Hyun-Sik Shin)

1969년 광운대학교 무선통신 공학과 졸업 (공학사)

1980년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1995년 경남대학교 대학원 졸업 (행정학박사)

현재 전남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 교수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대학원장

(사)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명예 회장

(사)한국전자통신학회 회장

※ 관심분야 : 정보통신, 통신정책, 데이터통신